시력교정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

라식·라섹 장점만 살린 '스마일 수술' 각광

최근 라식과 라섹의 장점만을 합친 릴렉스 스마일(SMILE·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이 주목받고 있다. 라식·라섹 수술에서 간혹 나타날 수 있는 안구건조증이나 빛 번짐, 심한 통증 등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라식·라섹 수술이 시력교정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스마일 수술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스마일 수술을 하고 있는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에게 스마일 수술의 효과와 특징에 대해 들어보자.

◇미국·유럽서 각광받는 선진 시력교정술 스마일 수술=스마일 수술은 독일에서 개발돼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력교정술로 각막표면을 투과해 각막실질에만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신기술을 이용, 정확히 교정량만큼만 분리해내는 새로운 시력교정술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일 수술은 펨토세컨 레이저가 각막을 그대로 통과해 필요한 만큼 시력을 교정하고, 2mm의 최소 절개창으로 교정한 각막실질을 꺼내면 수술이 끝난다. 각막 표면에 손상이 없어 안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단순히 도수가 높아지는 것 이상의 편안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스마일 수술은 절삭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정량만큼 분리된 각막실질만 꺼내면 되므로 잔여 각막이 충분하게 남게 된다. 각막이 돌출되는 원추각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막이 얇거나 초고도 근시 등 주의가 필요한 환자들도 걱정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라섹 수술시 시행하는 각막상피를 제거하지 않아도 돼 수술 후 1시간 내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수술 다음날부터 메이크업, 세안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해 휴가를 따로 내지 않아도 수술에서 회복까지 부담이 없다.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원장이 평소 안구건조증이 있는 직장인에게 스마일라식 수술을 하고 있다.

최소한의 각막절개로 안구건조증·통증 등 부작용 예방 효과 탁월 15개월만에 1000건 시행

◇라식·라섹의 장점만 합친 스마일 수술= 일반적으로 라식수술은 각막 절편을 생성한 후 각막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 교정이 이뤄진다. 그러나 각막절편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막에 분포하는 신경이 같이 절단돼 손상되게 된다. 신경이 손상되면 각막의 민감도가 떨어져 눈의 건조 상태를 감지하지 못해 안구건조증, 빛 번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라섹은 각막상피를 제거 후에 각막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하므로 각막표면에 상당한 자극을 준다.

하지만 스마일 수술은 라식처럼 각막 절편을 만들거나 라섹처럼 각막상피를 제거해 각막표면에 직접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이처럼 스마일 수술은 새로운 기술인데다 경험 많은 의사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 광주·전남지역에도 스마일을 하는 곳은 밝은광주안과 한 곳 뿐이다. 특히 밝은광주안과는 스마일 수술을 시행한지 1년 3개월만에 1000건 이상을 진행했으며 부작용도 없었다.

밝은광주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은 "최근에 나온 시술법이 가장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다만 스마일라식은 각막의 손상이나 합병증은 최대한 줄이고 수술 후에 교정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윤택림 전남대병원장이 밝힌 새해 업무계획

"KTX개통 따른 진료 협력체계 구축 환자중심·글로벌병원 도약 발판 마련"

전남대병원은 2015년을 KTX호남선 개통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의 해로 보고, 진료프로세스 개선과 전문의료 특화 등 의료경쟁력을 강화시켜 효율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환자가 원하는 때 최상의 진료를 펼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신속한 대응을 보이는 'The Best On Time' 'Speedy Response'의 슬로건을 최우선으로 실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환자와 지역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환자중심병원이자,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글로벌병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윤택림〈사진〉 병원장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 포부와 올해의 병원 운영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병원장은 먼저 올해 초 KTX 호남선 개통에 따른 지역 환자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방안을 제시했다.

내부적으로 꾸준한 진료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뇌혈관계질환·관절염·암 등 전문의료를 특화시켜 의료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특히 진료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현재 각 과별 추진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과에서는 그 성과가 나타나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1, 2차 병원과의 긴밀한 진료 협력관계를 구축해 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진료를 펼침으로써 타지역으로 향하는 환자들의 발걸음을 되돌린다는 전략이다.

그는 또한 "올해 권역외상센터와 어린이전문병원이 건립됨에 따라 최첨단 장비와 시스템으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펼치게 되고, 노후화 병동의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해 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역외상센터가 완공되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함께 응급실 과밀현상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병동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전문병원이 들어서면 난치성 소아환자 등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 치료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남대병원은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의약기관을 비롯해 외국 의료기관과의 교류협력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환자가 쉽고 빠르게 진료 예약 및 상담이 가능토록 국제화 상의료상담 포털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윤택림 병원장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밝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중심병원 조성 ▲국내외 유명 의료 및 연구기관과 활발한 연구협력을 통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성장 ▲다병원 체제에 걸맞은 책임경영체제 구축 ▲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과 주민에 대한 의료봉사와 사랑 나눔 전개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등 병원운영 계획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동아병원, 광주 유일 관절전문병원 뽑혀

동아병원(대표원장 박일성)이 최근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한 병원급 의료기관 111곳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이 중 관절분야는 동아병원을 포함, 전국에서 18곳이 선정됐다. 개원 20주년을 맞는 동아병원은 1995년 개원 이래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약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했으며, 2012년 7월 호남지역 300병상이하 종합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동아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막강한 의료진이다. 현재 정형외과 8명을 포함,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의 28명이 포진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물론 분야별 전문진료와 협진시스템을 갖추고 진료에 힘쓰고 있다. 정형외과의 경우 전체수술건수가 4만례를 기록할 정도로 관절수술분야에서는 막강한 경력과 실력을 자랑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새우리병원, 척추질환전문병원 재선정

광주 새우리병원이 척추질환전문병원으로 재선정됐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신청을 받았다.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한 133개 병원에 대해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1기 심사에는 없었던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MRI 촬영 횟수, 의료기관 평가 인정 여부 등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해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대상을 뽑았다.

새우리병원 김인환 대표원장은 "호남 유일의 척추질환 전문병원 재선정으로 인해 기존 전담 간호제를 더욱 확대하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강화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새우리병원은 호남 지역 최초 척추질환 전문 치료기관으로 2002년 개원, 2007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척추질환 수술분야에서 전국 4대 병원에 선정됐고, 2014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도 획득했다. /채희종기자 chae@

밝은안과21병원, 안과전문병원으로 재지정

밝은안과21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안과전문병원에 재지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밝은안과21병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안과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밝은안과21병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안과전문병원에 지정된 이후 이번 재지정 공고됐다.

전문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 및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지정된다.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12개 질환과 8개 진료과목이며 지정기준은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 진료양, 의료인력, 의료서비스 수준 등 지정기준을 충족시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후 지정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 1999년에 개원한 밝은안과21병원은 9인의 분야별 안과전문의가 시력교정을 비롯해 망막. 녹내장. 백내장, 각막. 소아안과 등 세분화된 진료를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빌라 3층 34평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천 파크 빌라 3층 304호
■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6500만원
■ 즉시 입주가, 내부 깨끗함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 328평, 33필지 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가 1억 3120만원

제일 오피스텔
■ 수기동, 12층, 29평
■ 양동하천방향, 원룸
■ 주거겸 사무실
■ 화장실 등 전체 올수리
■ 급매 6500만원

장성, 빌라 32평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 순이연립 301호
■ 정남향, 즉시 입주 가능
■ 현재 전 4500만원 임대 중
■ 매매가 6000만원

주인 직매 합니다. H. 010-3605-5000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2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융 3억 8천만 안고, 보 1억에 월 330만 임대가)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